

도미에 지구

도미에 지구는 후쿠에지마 섬의 남쪽 끝, 반도의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약 100 만 년 전, 이 지역의 화산 활동은 점성이 낮은 현무암질 용암류를 생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로서 51 만 년 전부터 18 만 년 전에 걸쳐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용암류에 의해 도미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용암 지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명소

이아나

용암 동굴은 분화한 용암이 흐르는 길의 암석을 녹이면서 산을 내려오므로써 형성됩니다. 용암류의 중심부는 계속 고온에 유동적이지만, 바깥쪽 표면은 공기나 물과 접하면 식어서 굳습니다. 중심부의 액체 상태 핵이 흐르면 돌로 된 텅 빈 터널(굳어버린 지각)이 남습니다. 도미에에서는 이러한 터널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것이 길이 1,400m 의 이아나입니다. 용암 동굴 아래쪽은 물이 차 있어 고토에서 최초로 발견된 망둑어의 일종인 도쿠쓰미미즈망둑어 등 희귀한 동굴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굴 위쪽에는 몇 종류의 박쥐가 서식하고 있으며, 건축용 석재가 필요했던 지역 주민에 의해 채석장으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시구라

현무암 벽돌로 만든 이 9m×25m 의 이시구라(돌로 만든 창고)는 17 세기 혹은 18 세기에 지역 영주가 세운 큰 건물의 벽만 남아 있습니다. 화산성 현무암은 도미에 전역에서 대량으로 산출되며, 매우 경도가 높고 단열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옛날부터 중요한 건축 자재였습니다. 지역 농민은 거칠게 깎은 돌이나 자연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영주는 이 건물의 건설에 많은 수고와 비용을 들였습니다. 돌은 힘들여 잘랐고 모르타르 없이 쌓을 수 있는 벽돌로 만들어졌습니다. 날씨와 해충에 좌우되지 않는 창고는 수확한 쌀을 보관하기 위해 특히 중요했습니다.